

'녹색 광산' 문화·체육시설 어우러진 사계절 휴식 공간



<6> 광산구 도심 공원

광주 5개 지자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광산구는 공원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 자치구'다.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황룡강변을 따라 유채꽃밭 길을 걷고, 호수 테크길 곳곳에서 무료 버스킹 무대를 관람하고, 도심 어디에서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덕분에 거주 만족도 역시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3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에는 총 근린공원 52개, 어린이공원 89개, 소공원 9개, 체육공원 2개, 역사공원 3개 등 총 155개의 공원이 조성돼 있다.

첨단지구 내에 있는 쌍암공원은 트레킹 코스, 잔디밭, 야외무대, 체육시설, 미술관, 도서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호수 주변을 따라 봄에는 벚꽃과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쌍암제에서 상쾌함을 내뿜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족과 연인, 동료 단위의 이용객이 많다.

광산구는 지난 4월 수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개천(계류)과 부유분수 등을 설치한 수변쉼터도 마련했다. 여기에 추가 조성한 쌍암 무궁화동산과 맨발 산책로(700m) 등은 인기폭발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맨발 산책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휴게의자 등도 마련돼 있어 쾌적성을 더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과 대형마트 인근에 자리한 수완호수공원 역시 광산구민의 산책 명소 중 하나다. 호수에

근린공원 52개 등 총 155개 공원 도심 어디서나 자연 접할 수 있어 맨발산책·야외무대 등 핫플레이스 민간공원도 곳곳에 새롭게 들어서

서는 춤추는 분수가 나오고 야외무대도 있어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열린다.

광산구에는 이 같은 호수공원 외에 유채꽃과 금계국 등 계절 꽃을 보며 따라 걸을 수 있는 공원이 가득하다.

유채꽃 명소로 알려진 황룡천수공원(선암동)은 공원 주변으로 황룡강이 흐르고, 유채꽃과 코스모스, 억새 등을 보며 걸을 수 있다. 또 운이 좋으면 겨울나기 중인 오리와 황조롱이, 수달 등 다양한 야생 동물을 만나볼 수도 있다.

황룡천수공원은 또 연중 내내 광산 뮤직은 페스티벌, 별별아트페스타,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광산구의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금계국을 만나고 싶다면 풍영정 천변길근린공원(신가동)에 가면 된다. 덩으로 160m 길이 맨발 걷기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다.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도 걷기에 최적화돼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귀띐이다.

고려인마을에 있는 다모아어린이공원(월곡동)도 꼭 한번을 방문해야 할 도심 공원 중 한 곳이다. 이곳에는 독립군 흥범도 장군의 흉상도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광산구에는 오는 2027년이면 광주시 예산으로 조성되는 재정공원과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간공원도 도심 곳곳에 새롭게 들어선다. 우선



쌍암제를 품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은 트레킹 코스, 잔디밭, 야외무대, 체육시설, 미술관, 도서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수랑공원과 봉산공원이 조성 절차를 밟고 있다. 우산동 수랑공원(24만 5520㎡)은 토지보상을 마친 상태로, 반려견놀이터와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유아숲체험장 등을 조성한다.

산월동 봉산공원(23만 8335㎡)에도 어린이놀이터와 다목적운동공간,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공원시설 공정률은 22%다. 이 밖에도 2020년 12월 공사를 마친 신촌 근린공원(2만 2854㎡)에 이어 영산강대상 근린공원

(서구·북구·광산구·62만 198㎡)과 송정 근린공원(소촌동·51만 3462㎡), 황룡강대상 근린공원(선암동·3만 3166㎡) 등도 3년 뒤 준공을 앞두고 있다. <끝>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발전 위해 광주·전남 대통합 필요"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 주목된다.

김 지사는 3일 열린 정례대회 자리에서 "빛나는 지방시대를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건이 되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를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대구경북특별자치' 출범을 위한 합의문 작성 이후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 이어 여론조사, 사·도 의회 동의 절차를 준비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을 통해 인구 약 500만 명으로 서울시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달하는 한반도 최대 면적의 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TK시는 남부계대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비전을 세워놓았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대구·경북 사례를 고려해 지역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21년 당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조광역 협력사업 발굴 및 메가시티 대응 연구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해 왔다.

전남도는 또 행안부 주도로 지난 2023년 3차례에 걸쳐 ▲특별자치제 건설방향 설정 ▲발굴 사무에 대한 우선 순위 검토 및 주력사무 제안 ▲우선순위 사업 구체화 방안 제시, 이관희망 국가사무 검토 등에 대해 이뤄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부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별자치제 설치를 위한 공동사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산안 표결 일주일 앞... 여야, 극한 대치

국힘 "감액안 먼저 철회해야" 민주당 "수정안부터 가져와라"

여야는 3일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사과와 강행 처리 예산 철회가 없으면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 운용하면서 증액을 얘기하려면 단독 처리 전에 협상해야 했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선(先)사과·후(後)협상' 원칙을 확고히 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지도부 간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사과 요구를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한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라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갖고 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추가 감액도 불사하겠다고 증액안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의 이번 기 싸움은 향후 예산안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먼저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할 경우 쟁점 예산을 두고 상대방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감액안에서 삭감된 검찰·경찰·사관·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을 시작하더라도 예비비 삭감, 권력기관 특별비 전액 삭감 원칙은 지키면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증액을 위해 특별비와 예비비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민생을 위해 성의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비와 예비비의 경우 필요성이 소명되고 사용 근거만 증명된다면 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입학문의

062)605-111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사범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0로 36